

## “술 취하면 콩깍지 ... ‘비어고글’ 효과 있다”

술에 취하면 타인에 대한 호감 자체가 늘지는 않지만 관심이 있던 사람에게 콩깍지가 쏠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설에 머물렀던 ‘맥주 고글(beer goggles)’ 및 ‘리퀴드 커리지(liquid courage)’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된 셈이다. 맥주를 마시면 고글(안경)을 쓴 것과 같다는 ‘비어고글(beer goggles)’은 술에 취해 눈에 콩깍지가 씌어 이성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을 뜻한다.



문했다.

실험 결과 알코올은 모르는 이성에 대해 느끼는 매력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다만 객관적으로 외모가 뛰어난 여성 상위 4명에 대한 호감도는 유의미하게 커졌다.

연구팀 관계자는 “취기가 오면 피실험자들은 매력적이라고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 접근할 확률이 1.71배 높아졌다.”며 “이는 술의 힘을 빌려 이성에 고백하는 ‘맥주고글’과 ‘리퀴드커리지’ 효과를 어느 정도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3일 ‘스푸트니크’(sputnik.kr)에 따르면 ‘스푸트니스텐퍼드대학교 연구팀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실험 보고서에서 술을 마시면 타인에 대한 관심이 강해지는 않지만 원래 호감을 가진 사람에게 더 끌릴 가능성은 약 2배 커진다고 주장했다.

술을 마시면 감정이 변한다는 연구 결과는 많다. 유명한 가설이 ‘맥주 고글’과 ‘리퀴드 커리지’ 효과다. ‘맥주 고글’은 취할수록 이성에 더 호감을 갖는 것을 뜻한다. ‘리퀴드 커리지’는 술을 마시고 없던 용기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최소 주 1회 음주를 하는 21~27세 남성 18쌍(36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남자가 친구끼리 술을 마시며 이성에 대해 토론하는 자연스러운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각 쌍은 절친한 친구들로 구성했다.

연구팀은 여성 여러 명의 사진과 영상을 피실험자들이 맨정신일 때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일 때 보여줬다. 각 상황에서 여성들에 대한 호감도를 매기는 한편, 기회가 된다면 실제 대화하고 싶은 이성을 꼽으라고 주

일부 학자들은 ‘맥주 고글’ 효과가 실존하지 않으며, 주류 회사의 마케팅일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실험 관계자는 “취한 사람에게서 두 현상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친구끼리 술을 마시고 이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현실적인 상황이 호감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전했다.

연구팀의 보드링 박사는 “해당 결과는 알코올 관련 환자와 의료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 연구에서는 알코올과 PPA 관계를 더 명확히 밝히기 위해, 보다 현실적인 상황에서 매력적인 대상에 대한 실제 접근 행동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breakbrunch.com

## 대림 마루

모든 비즈니스 상업용, 일반 주택, 신축건물 등등  
최고급 정품 독점 디자인 제품  
최저 가격 보장과 완벽 시공



\*\*\*특별세일\*\*\*

도매, 소매 최고급 제품! 100% 방수!

\$1.99 부터

모든제품은 품질보증서와 함께  
Lifetime warranty를 드립니다.

무료견적 전화: 714.833.9944

13564 Imperial Hwy. #A, Santa Fe Springs, CA 90670

## 동안 시술 전문 벨라스킨메디스파

맞춤 서비스가 가능한 다수의 최신 고성능 레이저 보유



미국 최대 레이저장비회사와 파트너십을 가진 레이저 최다 보유

FDA 승인받은 VIOLA 실리프팅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보톡스 / 필러 / 실리프팅 / 콜라겐 / 스킨부스터  
레이저 / 여드름 / 바디 / 스킨케어

예약문의: 714. 522. 8275 / 213. 808. 4398  
5730 Beach Blvd., #101, Buena Park, CA 90621 www.bellaskinmedispa.com